

제2572호
2025년 8월 17일(다해)

연중 제20주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존 마틴

(John Martin, 1789~1854)

1852, 캔버스에 유채, 136.3x212.3cm

랭 미술관, 영국 뉴캐슬

입당송 | 시편 84(83),10-11 참조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제1독서 | 예레 38,4-6.8-10

화답송 | 시편 40(39),2ㄱㄴ.2ㄷ-3.4.18(◎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

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 | 히브 12,1-4

복음환호송 |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 루카 12,49-53

영성체송 | 시편 130(129),7

주님께서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원하는 것(want)인가? 필요한 것(need)인가?



김현웅 바오로 신부 |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하와)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창세 3,6) 그들은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 열매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른 열매에 비해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열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명품’ 열매에 대한 집착이 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필요’가 아닌 ‘욕심과 탐욕’으로 범하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루카 12,49ㄱ,51ㄴ) 신앙을 갖게 된 이유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거나, 각박한 세상에서 마음 기댈 곳을 찾다가 천주교를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목적이 단지 마음의 평화뿐이라면, 차라리 정신 수련하는 곳에 가서 도를 닦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때때로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가난함을 요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하는 결단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열의 의미’입니다. 가족끼리 대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떼어내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많은 집착과 갈라섬(분열)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 없었더라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인데, 신앙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 느끼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태 10,34) 칼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은 상대방을 향해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잘라내고자 내가 나에게 휘두르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화는 다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연장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도 좋은 연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분열, 즉 잘라내고 갈라서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결단이며, 말씀으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인 칼을 주러 오셨습니다.

‘거룩한 망나니(?)’가 되어, 예수님께서 주여주시는 칼로 온갖 유혹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삶의 시련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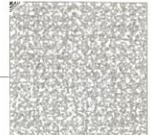


↗ 달려야 할 길

화가는 결정적으로 유황과 불로 멸망하는 소돔의 모습을 그립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의 불은 이렇게 가족마저 갈라놓습니다. 반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많은 이들에게 박해를 받았지만 죽음에서 건져집니다. 죄의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의인들은 고통을 통하여 정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영도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야 합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성화 해설



낯선 사람, 루카

낯선 이를 대할 때 상대의 눈을 마주 보며 인사하는 것은 보는 행위를 통해 그를 파악함으로써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함에서 비롯된 서양의 문화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구석으로 파고들며 자리를 내어주는 겸양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상대의 눈을 빤히 보는 것이 무례 일까 염려해 검은 모자를 쓴 수상한 이웃을 함부로 확인하지도 못한 채 흘끗거리곤 합니다. 모른다는 비지(非知)의 영역은 불안을 배태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인은 자신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지적 사실, 맑은 영역으로 교환하는 편을 택합니다. 영어에서 ‘나는 (그 사실을) 안다.’, ‘이해했다.’는 문장이 ‘I see,’(‘나는 본다.’)인 이유입니다.

내가 보지 않은 것,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것은 확실히 두렵습니다. 남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사회의 역사는 여성이 공적 공간에서 말하는 것을 낯설어했습니다. 백인은 피부색이 다른 인종을 ‘유색인종’으로 분류하고 등급을 매김으로써 낯선 이들을 지배하고 억압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알 수 없는 것들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정상성의 안쪽에 있음을 안심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에서 비롯되었겠으나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윤이형 작가의 『루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작품 속 ‘루카’는 사랑의 냉탕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목사인 아버지와 갈등에 놓입니다. 완고한 아버지는 아들의 낯선 사랑, 그 다음을 결코 수용하지 못합니다. 종교와 아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던 아버지가 택한 방법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을 진짜로 여기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등 망상을 겪습니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당시 저는 세례를 받기 전이었

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야 문학 내적으로만 이해하던 이 소설이 성경 말씀 위에 쓰인 것임을 새로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 동생 안토니오는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향한 시선이 많이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차별이나 편견, 사회 구조의 폐쇄성은 여전합니다. 심지어 그의 장애를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를 ‘약자’로 규정하는 나쁜 마음이지요.

어떤 것을 ‘정상’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사회에서 ‘다른’ 이들은 낯선 것으로 치워져 남몰래 상처받습니다. 이방인 루카는 그 누구보다 ‘다름’에 대하여 온몸으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그 다름이 자신의 것이었기에, 예수님을 죄인이거나 베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또 멸시받는 여인들의 친구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루카 복음서를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서’라 하는 이유겠지요. 차라리 우리가 모두 루카와 같이 이방인의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면 다름이 더는 위험이나 불안의 요소가 아니지 않을까요? 이방인 루카의 복음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게 됩니다.

한컷 묵상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X
 (사랑에는) 속된 것을 태우고 순수한 것을 단련시킬 수 있는
 불타는 날개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 불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듭니다. 주 예수께서 이 불을 세상에 지르셨습니다.
 - 성 암브로시오



김현진 글라라 | 작가

나를 버리는 신앙은 모든 관계 회복의 근본이요, 복음을 사는 핵심입니다



은성제 요셉 신부 | 가톨릭청소년이동쉼터(서울A지T) 소장

예전에 한 어머님께서 당신과 자녀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이뤘던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딸이 대학교에 입학한 해의 어느 날 아침에 뭔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딸은 그 어머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던지고 냅다 학교로 떠났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처럼 10시 미사에 참석하셨지만, 미사 내내 상처받고 화가 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답니다. 마음에 앙금이 잔뜩 남은 채로 성체조배실로 가서 예수님께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키워준 저에게 딸아이가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 제 딸이 정말 잘못한 거니 오늘 집에 돌아오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저에게 사과하게 해주세요. 저는 사과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씩씩거리며 기도했는데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질 무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딸에게 용서를 청해라. 평생 네가 딸에게 했던 말을 되돌려 받은 것이니 네가 먼저 용서를 청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더 화가 나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며 한참을 주님께 따겼답니다. 그렇게 다쏟아내고 난 뒤에야 차분해졌는데, 그때부터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했던 말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뿐였던 말과 행동들을 되돌려 받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성체조배실에서 주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저녁이 되어 딸이 돌아오자, 어머님은 딸아이 방으로 가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너한

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네가 했던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괘씸했는데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서 보니 그 것은 네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더라. 앞으로도 엄마에게 상처받았던 일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그러면 그때마다 엄마가 사과하고 용서를 청할게. 엄마를 용서해 다오.” 이렇게 자아를 죽이며 진심으로 사과하자 딸도 진심으로 받아주었답니다. 그 후 딸은 생각날 때마다 상처들을 어머니에게 털어놓곤 했는데, 어떤 때는 친척들이 모두 있는 가족 모임에서까지 얼굴 붉히며 이야기하는 바람에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순간에도 자아를 꺾고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후 눈에 보일 정도로 딸아이의 상처는 회복되었고, 서로의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자신을 대하는 딸의 태도도 점점 사랑과 존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뭔가 인생에서 상의할 일이 생기면 “엄마, 제가 지금 엄마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면서 전화로 자매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엄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딸이 되어서 그날 성체조배실에서 예수님과 씨름한 기억이 감사하다고 합니다.

내 자녀가 ‘내 것’이면 인성도, 삶의 지혜도, 축복도 나만큼만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 것’이라면 인성도, 삶의 지혜도, 축복도 예수님의 크기로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녀이니 나를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특별한 관계 (아모스서)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구약성경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 각각 하느님과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특별한 관계’는 아모스서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아모스 예언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기 때문에, 아모스서는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이 하느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발하고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특히 1~2장에서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특별한 관계’가 잘 드러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웃 국가들(다마스쿠스, 티로, 애돔, 모압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는 죄의 고발과 그에 대한 심판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아모 1,3)

이와 달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언급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푸셨던 일들이 언급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아모 2,10) 즉,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과거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셨던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모스 3~6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대한 신탁이 이어집니다.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씨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아모 3,1) 1~2장에서 모든 민족에 대해 이야기하던 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집중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이르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다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의 무분별한 삶, 종교 생활, 어리석은 지도자들 등등, 몇 개의 구절에 그치는 이방 민족들 비판과 달리, 이스라엘은 몇 장에 걸쳐 그 죄를 고발당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보다 엄격한 심판이 내려지는데, 이는 그들이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만큼,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민족이니, 다른 민족들보다 더 진실하고 충실히 하느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하느님 앞에서 보다 진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우리도 신앙에 더욱 충실히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낙태를 무제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를 규제하는 법률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무방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무려 36주나 된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바로 7월 11일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448,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과 7월 23일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이 그것입니다.

이 법안이 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위배

2019년 4월 11일 헌법 불합치 결정 시,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여기고,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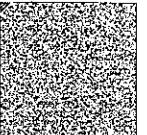
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법안은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여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임신 중지’라는 명칭의 문제

두 법안은 낙태를 ‘인공 임신 중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태아의 생명을 해친다는 사실을 감추고, 낙태를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일상적 행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도 사물의 실재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 낙태는 어떤 수단으로 이루어지든지, 임신에서 출생에 이르는 인간 존재의 출발 단계에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58항)

약물 낙태의 문제

또한 두 법안은 낙태 시술을 넘어 약물 낙태까지 허용하여, 여성이 낙태 약을 이용해 낙태를 ‘손



쉽게' 행하도록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낙태는 결코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 약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며,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약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

심지어 두 법안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포기함을 넘어, 낙태를 지원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2004헌바81, 2005헌마346 등)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초대 받았습니다. 이것은 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으로 무고한 인간입니다. 그는 약하고, 무력하며, 최소한의 방어 수단도 갖지 못한 채, 어머니의 보호와 돌봄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생명의 복음〉 58항 참조)

그러나 낙태는 이처럼 귀하고 무고한 아기를,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장소인 어머니의胎 중에서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런 실상을 생각하면, 교회는 낙태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낙태가 “특히 심각하고 통

탄스러운”(〈생명의 복음〉 58항) 것이라고 말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낙태를 “흉악한 죄악”(〈사목현장〉 51항)이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낙태가 순전히 이기적인 동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임신부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들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인해 그와 같은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이유가 아무리 심각하고 극적일지라도,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생명의 복음〉 58항) 오히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이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프란치스코, 〈복음의 기쁨〉 213항)

그러므로 교회는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률의 제정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공동선과 다른 모든 인권 수호의 첫째 가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믿는 모든 분들께서는 수정 순간부터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낙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요비

서울대교구 총대리 및
가톨릭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장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5년 8월 19일 최민순 요한 신부(63세)
- 2006년 8월 23일 박귀훈 사도 요한 신부(90세)
- 2020년 8월 22일 최익철 베네딕토 신부(98세)
- 2024년 8월 21일 김준영 미카엘 신부(38세)

교구청 알림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교구청별관 B106호(명동),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기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5년 후반기 강좌 안내

접수기간: 7월 29일(화)~8월 24일(주일)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 문의: 02)727-2379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9월 1일~12월 8일 매주(월) 10시30분~12시30분,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개강미사: 9월 1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자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 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1권), 직장인(2권) 성서못자리
때: 9월 3일~12월 10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5주 강의)
개강미사: 9월 3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회비(교재자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환경사목위원회**1) 제77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8월 21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제: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 제49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대상: 창조질서 보전에 관심 있는 모든 이
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 하늘땅물빛 소개, 수료미사 및 수료식
때: 9월 16일~10월 28일 매주(화) 19시~21시(총 6회)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ZOOM 온라인
동시 진행 / 회비: 1인당 3만 원(교재비 포함)
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ZOOM) 선택
신청방법: 구글 폼(<https://bulky.kr/GZxr3n>) 신청
접수마감: 9월 8일(월) 13시까지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 이메일 (ecocatholic@hanmail.net)

사랑의손길**2024년 하반기(9월~12월) 모금 현황**

9월 사연: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프놈펜 프락타케오 마을사도직 센터
갈 곳 없는 프락 타케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모금 기간: 2024년 8월 31일~10월 4일
총 모금액: 122,417,155원



10월 사연: 동작종합사회복지관
절망 속에서도 희망하도록(노량진2동 고시촌 생활 지원)
모금 기간: 2024년 10월 5일~11월 1일
총 모금액: 39,932,789원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김명숙 개인전: 1전시실
서강미술가회 회원전: 2전시실
김학순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8월 22일(금)~31일(주일)

2025 '명동, 겨울을 밝히다' 성탄마켓 참가 부스 공모

때: 12월 24일(수)~25일(목) /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품목: 수공예 성물, 공예품, 성탄 관련 물품 등
9월 21일까지 이메일(culture@seoul.catholic.kr) 접수
다양한 판매 작품 이미지와 설명, 가격대, 작가 소개, 연락처 필수/발표: 10월 초 개별 통보(마켓OT: 10월 13일(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6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 교육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때: 9월 4일~11월 13일 매주(목) 14시~17시(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방법: 온라인 교육 / 심화 교육(교정사목센터)

마감: 8월 29일(금)까지 / 회비: 10만원

문의: 02)921-5093, 010-3732-5093

9월 생명위원회 미사 및 프로그램 안내**1) 청년파티(성·생명·사랑의 길)**

대상: 미혼 만 20세~39세 청년 / 회비: 10만원

때: 9월 6일(토) 13시30분~7일(주일) 16시(1박 2일)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문의: 02)727-2353

2) 참생명학교 심화교육

대상: 생명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관심 있는 누구나(기초과정 미이수자도 신청 가능)

때: 9월 19일(금)~11월 28일(금) 오후 8시~9시30분(10주간)

강의방식: 온라인(zoom) / 회비: 5만원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 문의: 02)727-2353

9월 애동행 행사 및 시복시성 기원 미사 안내**1) 9월애동행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때: 8월 15일(금)~9월 28일(주일)

참여방법: ① 성지 및 순례지(11곳),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순례자여권세트' 구입, ②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으며 스텁프 찍기, ③ 순교자성월을 닫는미사(9월 28일)에 참여하여, 완주여권 제출 후 축복장 수령 / 문의: 02)2269-0413
구입처: 가회동성당, 광희문순교자현양관, 교구역사관(명동), 국군중앙성당(왜고개성지), 당고개순교성지, 삼성산성당, 새남터순교성지, 서소문밖네거리순교성지, 절두산순교성지, 종로성당, 중림동야현성당,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 순례자여권세트 구입비는 전액 이웃사랑실천 기금으로 사용

2) 시복시성 기원 미사(213회)

이 달의 하느님의 종 '정은 바오로'

때, 곳: 8월 19일(화) 오전 10시, 절두산 순교성지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소방사목 생명사랑 미사 및 & 사진전 안내

때: 8월 23일(토) 15시30분~17시30분

곳: 광복공유(서울 성북구 솔샘로 73-16)

문의(신청):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147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8월 19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덕원자치수도원구 덕원 본당 / 문의: 02)727-2420

전례특강

대상: 전례봉사자, 전례분과위원

내용: 축복예식, 시간전례, 다양한 신심행위, 장례예식 등 / 회비: 3만원(선착순 200명 / 9월 5일 접수마감)

때: 9월 13일 ~ 20일(토) 13시~17시(2주간)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본당 사무실에서 교구 양업 시스템으로 접수

문의: 02)727-2066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가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8월 1일(금)~22일(금) / 3개월 수업(9월~11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가을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학기	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 · 성악(남·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병원사목위원회 원목봉사자 교육 안내(2주)

대상: 원목봉사자 및 원목봉사에 관심 있는 모든신자

때: 9월 23일~30일 매주(화) 13시~17시(2주간)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1만5천원

문의: 02)727-2073 병원사목위원회

(1주) 9월 23일	CPE-임상사목교육	13시~17시
	병자를 돌보시는 주님	
(2주) 9월 30일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파견미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25년 가을학기 공개대학

때, 곳: 9월 3일~11월 12일 매주(수) 19시~20시20분(총10회), 평화방송 4층 연구소 / 회비: 10만원(입금 후 연락요망)

계좌: 국민은행 844402-04-171823 천강우(교회사동인회) / 문의: 010-8757-7639 정신영(동인회 간사)

9월 3일 (이민석)	조선대무구 설정 이전 조선교회	10월 15일 병종우 신부	영웅적 덕행
9월 10일 (조현범)	사암대무구 선교사 브뤼기어 신부와 조선 선교지	10월 29일 (송관희)	사료를 넣어 마음으로 1
9월 17일 (방상근)	조선 입국을 둘러싼 논란	11월 5일 (송관희)	사료를 넣어 마음으로 2
9월 24일 (차기진)	조선 선교 여성과 선종, 유해 이장	11월 12일 (조현간 신부)	시복 추진과 대목구 설정의 의의
10월 1일 (조현간 신부)	선교 영성	11월 19일 (조현간 신부, 정원현 신부)	종강 미사 (조현간 신부, 정원현 신부)

후원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후기 QR 스캔)

**11월 사연: 이주사목위원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모금 기간: 2024년 11월 2일~29일

총 모금액: 52,403,936원

**12월 사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우리가 꿈을 꿔도 될까요?

모금 기간: 2024년 11월 30일~2025년 1월 3일

총 모금액: 141,544,931원

인준단체 알림

모임

8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착한목자수녀회)

대상: 남녀 청년 15명 / 문의: 010-7197-1390
때, 곳: 8월 28일(목) 19시30분, 영성센터(명동) B401호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50분 / 말씀·축복기도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이상기

13지구 성령기도회 낮피정 / 문의: 010-9528-0023

강사: 최황진 신부 / 강의, 미사, 안수
때, 곳: 8월 19일(화) 13시~16시, 중앙동성당(주차 불가)

수도전통 렉시오 디비나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 만나는 기쁨
때: 9월 1일부터 매주(월) 오전(7회) / 회비: 12만원
문의: 010-9401-9374 상지피정집

파티마 성모님 발현 피정

때: 8월 19일(화) 오전 9시30분~정오 / 02)756-3473,
010-2565-3473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박현민 신부(수원교구)

훈인재발견(르트루바이) 주말 / 문의: 02)898-2141

내용: 배우자와의 갈등 극복과 관계회복
대상: 혼인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
때, 곳: 9월 26일~28일(2박3일), ME만남의집(강서구)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제주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쉼, 순례(성지·자연), 말씀초대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사목위원·구반장)
때: 9월 18일~20일·10월 30일~11월 1일·11월 11일~13일 /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14동작지구 성령쇄신봉사회 낮피정 / 문의: 010-3341-1354

때, 곳: 13시~16시, 동작동성당 3층 대성전
8월 19일(화) 김재덕 신부 9월 16일(화) 박희전 신부

피아골 피정·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9월 19일~20일, 11월 21일~22일
수도원 순례	10월 14일~17일(트라파스트)
총성남 신부	말레이지아 페낭 2026년 1월 26일~2월 1일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 010-3340-0201
효소 단식 | 8월 28일(목)~31일(주일)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 9월 12일(금)~14일(주일)
성경 암독 | 9월 19일(금)~27일(토), 10월 24일(금)~11월 1일(토)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주일	8월 30일(토)~31일(주일), 10월 11일(토)~12일(주일)
3주일	8월 21일(목)~24일(주일), 9월 18일(목)~21일(주일)
8주일	9월 4일(목)~12일(금), 10월 17일(금)~25일(토)
40일	10월 14일(화)~11월 22일(토)

ICPE Jesus 시그널 피정 7차

대상: 신자(만 29세~39세 미혼) / 문의: 010-5320-0419
때, 곳: 9월 12일~14일, 마리스타 교육관(합정)

멈춤, 그리고 쉼-도심 속 침묵 피정

내용: 일상을 멈추고 온전한 쉼 안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9월 27일(토) 11시~28일(주일) 11시, 노틀담
서울 교육관(종로구 북촌로 54) / 9월 18일까지 접수
1인 1실 / 문의(접수): 02)2135-9398 한국CLC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8월 22일(금)~25일(월)·9월 19일(금)~22일
(월)·10월 17일(금)~22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사제, 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때, 곳: 우도 8월 23일~25일, 생태순례 9월 15일~17
일·9월 26일~28일·10월 1일~3일·10월 10일~12일,
성지순례(추자도) 10월 16일~19일·10월 26일~29일
·11월 22일~25일, 면령의 집(주최) / 064)732-4702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9월 1일~3일·10월 2일~4일·10월 11일~13
일·11월 10일~13일·11월 24일~26일·11월 27일~29일,
체나콜로 대피정 자연순례 10월 16일~18일·10월 18일
~20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9월 7일~10일·9월 18일
~21일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 8월 29일~31일, 9월 12일~14일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65세 이상) | 9월 15일(월)~19일(금)
엄마와 딸(미혼) 피정 | 9월 20일(토)~21일(주일)
기도학교(10주 과정) | 9월 1일(월) 개강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9월 5일 10시~15시30분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9월 12일~14일(2박3일)
음악 피정	10월 11일(토) 10시~16시
가톨릭서간과 함께하는 대침묵 피정	11월 28일~30일(2박3일)
단체 피정(자체·외부)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
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 피정

곳: 명동 / 본당 혹은 단체별 필요에
따라 위탁 피정·자체 피정 가능, 사목자(성직자·
수도자)들의 자기돌봄 피정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흔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디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교육

수제 빵주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ey10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토요여행영어(한국여성생활연구원)

곳: 가톨릭회관 522호 / 강사: 배명숙(언어학박사)
회비: 4회 10만원 / 계좌: 우리 1002-566-275262
선착순 접수 / 문의: 02)727-2471, 010-3897-3740

물이솟는샘 '예닮영성' 교육

II.우리 하느님: 9월 1일(월) 10시30분, 교구청 501호
홍성만 신부 / 주1회·1시간30분 교육(총12회)
문의(접수): 02)472-3217 가톨릭영성아카데미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경희 신부)

목요 기도학교 수강생 모집

요한복음 묵상기도-수도회 신부 지도
때: 9월 5일 개강, 매주(목) 11시·19시30분
곳: 서초평화빌딩 2층(반포대로22)
문의(접수): 010-9959-8983 그리스도 레지오히

도림동교육센터 기숙사 가을학기 모집

대상: 남학생, 젊은 직장인 / 개인방, 개인욕실
가족·공부 분위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영성지도: 동아시아 국제교류재단·오피스데이
문의: 010-2554-1507 / dorimdongcenter.org

공개강좌 '그리스도인의 영적식별'

강사: 박일 신부(서울대교구) / 회비: 12만원
때: 9월 9일~12월 9일 매주(화) 15시30분~17시30분
계좌: 국민 031-601-04-092291 (제)천주교서울대교구
사전접수 및 현장접수 / 문의: 02)747-8501(내선
2번) 가톨릭교리신학원 교무과

2026학년도 양업고등학교 입학 전형 안내

양업고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지성·인성·
영성의 삼위일체 교육을 하는 Quality School입니다
양업의 29기 가족을 모집합니다
홈페이지-입학안내-전형요강 확인
원서접수: 9월 1일(월)~19일(금) / 문의: 043)260-5076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온라인중 심학과) 입학생 모집

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누구나
모집기간: 9월 8일(월)~12일(금) / 학과: 복지서비스,
상담심리, 경찰탐정, 부동산경영, 창업경영
국가장학금대상자(소득 8분위이내) 등록금전액 지원
문의: 053)850-3117, 010-5356-3315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 음악원(주최 / 신촌·서초)

25-2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내용: 산티아고 스쿨(주말·주중) 순례에 대한 영적 이해와 준비(6만원), 전례꽃꽂이 성전 꽃꽂이를 위한 플라워 디자인 이론과 실기(30~40만원), 연령회 활동실무 연도 의미(예식)에 맞는 가장법과 상장예식의 진행 방법(20만원),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국제인증아로마자격증과정 이론과 실기(300만원) / 문의: 02)2164-6587 전화접수 가능

곳: 가톨릭대평생교육원(부천 역곡)

홈페이지: <https://lifelong.catholic.ac.kr>

국악성가연구소 수강생 모집 / 문의: 02)558-2004

국악성가 무료 강좌	매주(수) 14시 / 누구나 환영
초보자 반주장구	매주(목) 13시30분 / 회비 있음

'한국교회 축성생활의 해' 학술 심포지엄

때, 곳: 9월 8일(월) 13시~18시,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 / 문의(접수): 010-9730-7430 (문자)

주관: 한국천주교 남자 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 협의회·한국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신청: <https://forms.gle/p7KgkgvH5iehzuag6>

주제1	고령과 연대-현시대의 철학적 인간학을 위한 시론
주제2	축성 생활-총실성과 새신의 여성
주제3	다시 출현하는 축성 생활의 다양한 모습들
주제4	희망의 순례 공동체인 교회의 영성과 사명

예수회센터 동영상 강좌[지난 학기]

각 6주~12주 과정 / 이메일과 문자로 동영상 링크 발송
더 많은 강의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마태오의 예수 이야기	박상훈 신부
꿈-하느님의 귀한 선물	홍기령 교수
단테 '신곡' 강의	김산춘 신부
영성과 심리의 통합 네번째 길 -예수님의 파스카 그리고 새로 나는 삶	최지원 수녀

바오로 교육관 2025년 하반기 강좌

때, 곳: 9월 개강, 명동대성당 뒤편 / 010-4229-7894

회비: 성경 1강좌 8만원, 인문학 강좌 12만원

개좌: 우리 1005-002-675612 (재)센漯 수도원(입금 후 문자)

(월)	오전	레위기-신명기(대면·비대면)
	오후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화)	오전	사도행전(대면·비대면)
	오후	미술사와 함께 읽는 세계교회사 I(인문학)
(수)	오전	시서·지혜서
	오후	말씀과 음악으로 함께하는 행복여정 II(인문학)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아퀴나스합창단 단원 모집

제89회 정기연주회(11월초, 살리에리 레퀴엠 및 작곡가 별 미세레레)를 함께하실 분 / 문의: 010-5397-7387

연습: 매주(토) 15시, 명동성당 영성센터

대상: 55세 이하 성음악 합창 경력자(알토·베이스 우대)

미사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3673-2525

때, 곳: 8월 21일(목) 오전 10시, 사당5동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8월 26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 미사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초대강사: 김현우 신부
때, 곳: 8월 18일(월) 13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접수): 02)6253-3373, 010-8360-3700

안내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가톨릭대학교 '제12회 이원길 인본주의상' 공모

가톨릭 인본주의를 삶으로 실천하며 사회에 기여한 개인·단체 공모 / 상폐 및 상금 5천만원 수여
홈페이지: bwl.catholic.ac.kr

문의: 02)2164-4646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운영팀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제25회 cpbc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때, 곳: 9월 19일(금) 20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 문의: 0507-1473-2305

단장: 조승현 신부 / 지휘: 이지영

티켓: 인터파크 예매(8월 19일 오픈)-1만원, 2만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가톨릭뇌은행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홈페이지(yonaresort.com) 참조
방법: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 문의: 041)934-7758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8월 26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직원모집

한국카리타스협회 직원 모집

분야: 국내 사회복지 담당 1명(사회복지사 자격증, 실무 경력자 우대) / 9월 3일(수)까지 접수

모집 절차 및 방법은 홈페이지(www.caritas.or.kr)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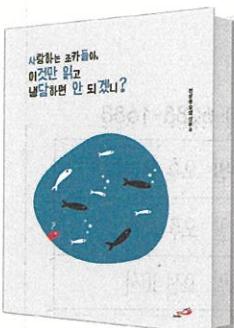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서류: 입사지원서(본사양식) / 문의: 02)6365-1829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회사소개-채용정보 메뉴를 반드시 참조 /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서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영업국	영업
편집국	전문 편집
CRM사업국	매장 판매 및 관리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예수성심전교남녀수도회	9월 19일(금)~21일(주일)	봉평 성심 봇자리	010-2817-3101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8월 24일(주일) 10시~15시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7542-7845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순교복지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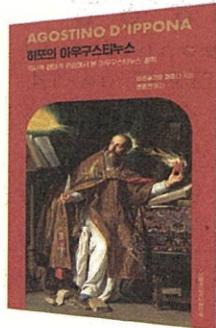
서울 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사랑하는 조카들아,
이것만 읽고 냉담하면
안 되겠니?**

전삼용 지음

성바오로출판사 | 352쪽 | 2만2천원
문의: 02)945-2972, 010-2572-1365

가톨릭 신앙을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못해 교회를 떠난 이들과 냉담 중인 젊은이들을 위해 쓴 책이다. 가톨릭 교리를 쉽게 풀어 설명하며, 젊은이들의 고민과 방황에 실제적인 조언을 전한다. 사목 현장에서 얻은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 본당과 교회에 대한 친근함도 함께 전하면서 신앙에 회의가 든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따뜻한 안내서다.

**신간****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비르질리오파초니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456쪽 | 2만3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가톨릭으로 회심하기 전 지녔던 철학적 전망과 신앙-이성 간의 해석학적 순환을 다룬다. 섭리, 인간학, 인식론, 윤리학, 정치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분석하며, 형식적·논리적 해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문헌학적 검증을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자보다는 이성적 탐구자였음을 밝힌다.

**음악회****림스키코르사코프
'세에라자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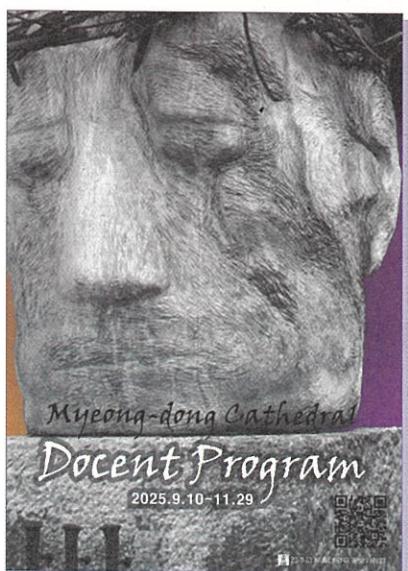
때, 곳: 9월 4일(목)~5일(금), 롯데콘서트홀
입장권: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C석 1만원 / 문의: 02)3700-6339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대만계 미국인 지휘자 메이안 천이 서울시향과 첫 호흡을 맞추며 한국 무대에 데뷔한다. 2005년 말코 지휘 콩쿠르에서 여성 최초로 우승한 천은, '최고의 인플루언서 30인'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진은숙의 <수비토 콘 포르자>와 린스키코르사코프의 <세에라자드>를 지휘하며, 스테판 재키브가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을 협연한다.

**음악회****여름 가족 음악회**

때, 곳: 8월 29일(금) 19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문의: 02)399-1000
입장권: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백윤학 지휘자와 서울시합창단, 서울페스타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여름 특별 무대가 8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모차르트의 <대관식 미사>로 여는 장엄한 오프닝부터, 세계인이 사랑하는 오페라와 친숙한 클래식 곡들이 감동을 더한다. <카르멘>, <나비부인>, <라데츠키 행진곡> 등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들이 무대에 오른다.



2025년 하반기 정기 일정
명동대성당 가톨릭 미술 이야기

도슨트 프로그램사전 예약 신청
인터넷 사전 예약 필수

일정 안내: 9월 10일(수) ~ 11월 29일(토)

시간: 홈페이지 참조 [일부 시간은 명동대성당 일정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8월 19일 10시부터 도슨트 홈페이지(cc.catholic.or.kr/docent) 직접 접속 또는 상단 우측 큐알코드 이용하여 접속 후 신청 |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명동대성당은 한국 근대 건축사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며,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가톨릭 미술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성전입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명동대성당 도슨트 프로그램>을 통해 명동대성당의 역사와 건축, 전례, 성미술, 스테인드글라스에 담긴 복음적·예술적 메시지를 발견하세요.



제2시대문·마포지구 대표본당
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군·시·군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법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교종) 오후 6시(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24명의 교우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례식 : 8월 17일(주일) 오전 11시 교종미사 중

● 유시창 베드로 주임 신부님 환송미사

- 환송미사 : 8월 31일(주일) 11시 교종미사
- 이동 : 9월 2일(화) 오전 10시 미사 후
- ※ 5년간의 사목을 마치고 새로운 임지로 떠나시는 주임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8월 19일(화) 오전 10시
-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 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 기간 : 8월 5일(화) ~ 11월 13일(목)
- 일시 : 매일 오후 8시 / 소성전
-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 교우를 환영합니다 (7월~8월)

- 환영식 : 8월 24일(주일) 11시 교종미사 중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황명원	미카엘라	1-2	권경옥	레지나	2-4
서주현	젬마	2-4	이용훈	베네딕도	2-4
홍은주	클라라	4-1	황혜성	마리나	4-2
김현진	안젤라	4-3	이병주	베드로	4-4
박제연	마티아	5-2	이영현	도미니꼬	5-2
조정현	알렉산더	5-2	김미송	마리아	6-5
채명현	F.사비리오	6-5	구자빈	아델리나	7-4
이수나	수산나	8-2	박세환	베드로	8-3
고혁주	안드레아	10-1	송우영	베드로	10-1

● 청년 여름캠프

- 일정 : 8월 29일(금) ~ 31일(주일)
- 장소 : 용문청소년수련원
- 신청 : QR 스캔 후 신청서 작성
- 문의 : 사도요한 캠프장 (010-4815-1794)
- ※ 8월 29일(금) 저녁에 성당에서 버스로 이동합니다.
- ※ 8월 31일(주일) 오후 6시 미사는 일반미사로 봉헌됩니다.
- ※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 8월 병자영성체는 없습니다.

● 복사단 입단식

- 일시 : 8월 23일(토) 오후 3시 미사 중

● 연성회(70대) 모임

- 일시 : 8월 21일(목) 오후 5시 30분 / 201호
- 문의 : 요셉 총무 (010-3891-4300)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오라떼(교종미사성가대) 단원 모집

- 대상 : 영세 교우 및 예비신자
- 테너, 베이스 파트 환영
- 문의 : 하이친타 단장 (010-6788-1588)



● 문화학교(주일학교) 학생 모집

- 과목 : 미술, 기타/우쿠렐레, 바이올린, 켈리그라피
- 수업일정 : 9월 6일(토) ~ 11월 22일(토)
매주 토요일 수업
- 신규/재수강 신청 : 8월 22일(금)까지
- 등록 : 8월 27일(수)까지
- 문의 : 최윤희 아녜스 (010-4538-5665)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8. 10)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1,993	709 (35.6%)	670 (33.6%)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8월 4일 ~ 8월 10일)

김영숙	오만원	김진웅	오만원
곽선모	오천원	조영훈	일십만원
변경섭	일십만원	박승복	오십만원
강경탁	오십만원	김은순	오만원
이현수	일십만원	강민구	일십만원
홍진호	오만원	한인경	이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오만원
익명	삼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19주일)

- | | |
|---------|------------|
| 교 무 금 | 8,155,000원 |
| 주 일 헌 금 | 5,353,000원 |

입당 447 | 봉헌 510,220,221 | 성체 160,159,158 | 파견 453



주님 이세계를 도우소서